

# 재택근무 희망 근로자의 재택 근무 공간 특성에 대한 선호 연구

## A Study on Office Workers' Preference for Spatial Characteristics of Home Office

신 화 경\*  
Shin, Hwa Kyoung

### Abstract

The number of people working in their own home has been increasing, and this will change the form of hou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lan the new house for the people working at home, and to offer business related working area.

This study was designed to know the office workers' preference for spatial characteristics of home offic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The subject were 257 office workers living in Seoul area. Frequency, percentage, and  $\chi^2$ -test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lace for home-office should be located independently inside house. The desirable size for the home-office might be 3-4 pyung. If the place for home-office share with other places, livingroom or bedroom, it is necessary to develop furniture and partition matching with residential furniture and atmosphere. Office workers prefer U-shaped workstation and coner-shaped workstation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건축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중 주거개념에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즉, 주택은 근대 이후 단순한 주거 기능의 수행에서 업무 기능까지를 담당해야하는 기능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른바 주택은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뿐만 아니라 “24시간 생활센터”로 그 개념이 바뀌어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최재필, 2000).

컴퓨터 보급률이 증가되고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주택 내 통신기능이 확대되었고 사무실

이외에도 자유로이 업무가 가능하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재택근무를 근무체제로 인정할 수 있게 하려는 관련 법안이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에 오르고 있으며 새 노동법안에는 틀에 박힌 근무형태를 강요하지 않는 ‘재량근로제’의 도입을 고려하는 등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하미경 외, 1998). 또한 기업 측에서도 사무실 비용절감, 인건비절감 등 경제적인 이유로 재택근무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재택근무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영순 외, 1997).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장소로는 기존 주택, 기존 주택에 독립적으로 붙은 별채, 기존 주택도 회사도 아닌 제 3의 장소 등으로 분류할 수

\* 정회원,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소비자주거전공 조교수

있다(최재필, 2000). 기존 주택 내에 재택근무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24시간 생활센터로서의 주택은 가족의 생활패턴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는데 업무의 기능과 기존의 주거 기능이 본질상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주택내 생활변화를 고려한 공간계획이 요구된다. 즉, 기존의 주거 기능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주택 내 재택근무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시 선호하는 재택근무 공간 특성을 조사하여 재택근무를 위한 공간개발 및 차기 재택근무용 주거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재택근무공간 계획을 위한 것으로 서울시에 위치한 기업의 근로자로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 않으나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할 경우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주거 기능과 업무 기능 모두를 수용해야하는 기존 주택 내에 재택근무 공간을 만드는 경우에 한정하였다. 이는 업무 기능이 주거 기능과 별개로 존재하는 경우와는 달리 업무 기능이 주거 공간으로 들어가는 경우 재택근무 공간의 위치나 개방 정도, 기존 주거공간과의 관련성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 주거 기능과 주거 기능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 주택 내 재택근무공간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한 신뢰도 검증 후<sup>1)</sup> 수정 보완하였다. 조사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과 재택근무 희망 여부, 재택근무공간 특성(규모, 위치, 형태, 가구 배치 등)에 대한 선호 등이다.

자료수집은 자기기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0년 10월 9일부터 10월 24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34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02부를 회

수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미비한 2부와 재택근무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43부를 제외한 총 25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이용 분석하였으며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분석은  $\chi^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I. 문헌고찰

### 1. 재택근무의 개념 및 현황

재택근무란 컴퓨터 등 정보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집과 사무실간의 업무를 전달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집에서의 업무를 통하여 실질적인 수입을 얻는 경우를 뜻한다. 1980년 미래학자인 토플러는 사회의 중심인 가정에 대해 강조하면서 미래에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주택으로 일의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한 이래, 사무근로자의 증가, 정보통신의 발달, 교통문제의 해결,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수용, 새로운 형태의 사무개념의 정착, 새로운 공동문화 양식의 창출 등에 의해 재택근무가 발생하고 그 수가 증가되고 있다(최병두, 1995).

미국의 경우 재택근무자 수가 1996년 말 약 4,700만 명에 이르며 1997년 전체 노동자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내외경제, 1997.1.27; 동아일보, 1999.11.11). 일본의 경우 1995년 현재 약 95만 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IBM회사에서는 육아가 필요한 사원을 대상으로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e-work 제도'를 2000년 4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중앙일보, 2000.2.18). 우리 나라는 1980년 말에 프로랜스, 한양전자, 연합데이터에서 재택근무를 시작한 것에 이어 1990년대에는 한국 IBM과 한국통신 등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하였다(조성혜, 1995). 최근에는 포항제철 계열사인 포스

데이터에서는 재택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본격적인 재택근무에 도입할 예정이며 현대건설에서도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1세기의 직장생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재택근무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www.hdec.co.kr) 재택근무가 확산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 2. 재택근무를 위한 공간

재택근무자가 일할 수 있는 장소로서는 기존 주택, 기존 주택에 독립적으로 붙은 별채, 기존 주택도 회사도 아닌 제 3의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공동 주택에 적용하여 보면 1) 단위 주호내에 별도의 재택근무실을 추가로 놓은 형태, 2) 주동내(지하나 일층, 혹은 최상층 등)에 재택근무공간을 두어 원하는 주민에게 분양하는 방법, 3) 단지 내에 텔레워크센터를 건립하여 원하는 주민에게 시설 이용료를 받고 임대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재필, 2000). 재택근무를 위한 공간 중 기존 주택은 집안 생활의 편리성과 사생활 보호라는 장점을 지니며 텔레워크센터는 장비에 대한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는 경비절약, 다른 재택근무자와의 만남, 업무효율성 증대 등의 장점을 지닌다(Bredin, 1996). 각각의 장단점을 지닌 재택근무 공간의 활용은 재택근무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로 여성근로자가 시간제나 성과제 근무를 하게 되는 초기단계에서는 홈오피스가 근무장소로 사용되며, 전문인력이 정규종일제 근무를 하게 되는 발전단계에서는 텔레커뮤니티센터가 출현하게 되고 정보관련 전 업종에서 정규종일제 근무를 하게 되는 성숙단계에서는 근무 유형에 따라 홈오피스와 텔레커뮤니티센터 모두가 재택 근무장으로 활용된다(조성혜, 1995).

기존 주택에 독립적으로 붙은 별채나 기존 주택도 회사도 아닌 제 3의 장소(텔레워크센터)는 기존 주거 기능을 하는 공간과는 별도로 업무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기존 주택 내에 재택근무 공간을 추가할 경우에는 동일 주거 내에서 주거의 기능과 업무의 기능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 기존 주거공간에 업무 공간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재택근무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이 때 기존의 주거기능과 업무기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공간의 규모 및 위치, 형태의 결정이 중요하다.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업무공간과 기존 주거기능을 위한 공간을 물리적으로나 사회심리적으로 서로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재택근무형 주거계획의 기본 원칙이 된다(Meade, 1993).

기존 주거 속에 새로운 재택근무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업무공간의 프라이버시(일상생활과의 구분)를 확보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완전 독립형: 완전한 개인룸 형식, 부분개방형: 낮은 파티션, 가구 등으로 단절하는 방법, 개방형: 주거공간 내의 한 쪽에 워크데스크를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다(가구저널, 1998; Zimmerman, 1996). 재택근무공간의 규모로는 3~5평 정도가 제시되고 있으며(박영순 외, 1997; 하미경 외, 1998) 이는 재택근무공간의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다(임미숙 외, 1999).

## III.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재택근무 공간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 전체 조사대상자의 재택근무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고 이들 재택근무 희망자들의 재택근무 공간 특성에 대한 선호를 서술한다.

재택근무를 허용할 경우의 재택근무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재택근무 의사가 있는 경우가 85.7%로 나타나 최근 연구(최재필, 2000)의 재택근무 선호 조사 결과인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 비율 85.3%와 비슷한 수치를 보여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근무 희망자 중 32.3%는 직종을 바꿔서라도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재택근무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36.2%, 여성이 63.8%이었으며 연령은 20대가 65.8%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8.4%, 40대가 5.8%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졸업이 40.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28.4%, 전문대 졸업이 23.7%, 대학원 졸업이 2.3%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100~150만원 이하가 48.2%이 가장 많았고, 150~200만원 이하가 24.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낮아 경력이 길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으로는 APT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연립주택이 32.3%, 단독주택이 24.1% 순으로 나타나 집합주택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규모는 20~30평 미만이 47.1%으로 가장 많았고, 30~40평 미만이 26.1%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내 방수는 3개인 경우가 57.2%로 가장 많았다.

### 2. 조사대상자의 업무 특성

조사대상자의 업무 종류는 사무직이 36.2%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이 16.3%, 관리직이 14.8% 순이었다. 현재 직급은 사원이 65.0%이 가장 많았고 대리 15.0%, 주임이 10.9% 순이었다. 통근시간으로는 1~2시간이 52.9%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이 31.9%였다.

사무실 외 업무 유무를 조사한 결과 사무실 외 근무가 없는 경우가 70.0%로 나타났으며 사무실 외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 외 업무량이 사무실 업무량의 20~50%가 되는 경우가 47.6%로 가장 많았고, 20%미만이 36.9%로 나타났다.

가정내 업무 수행유무는 '안 한다'가 73.9%, '한다' 22.7%로 나타났으며, 가정내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 사무실 업무량의 20~50%가 되는 경우가 50.0% 가장 높았으며, 20% 미만이 45.6%로 나타났다.

희망 재택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10시간 미만이 61.9%로 가장 많았으며 8시간 미만이 20.6%, 10시간~12시간이 16.3% 순으로 나타났다.

### 3. 재택근무 공간의 위치에 대한 선호

기존 주택 내 재택근무를 위한 공간에 대한 선호는 독립 공간을 59.1%로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거실을 19.1%, 서재를 11.3%, 침실을 8.6%, 주방을 1.9%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박영순 외, 1997; 하미경 외, 1998)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택근무자들이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택근무 공간인 공부방/서재, 거실, 침실 이외에 독립된 재택근무 공간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작업공간과 기존 주거공간과의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프라이버시 및 업무 방해를 받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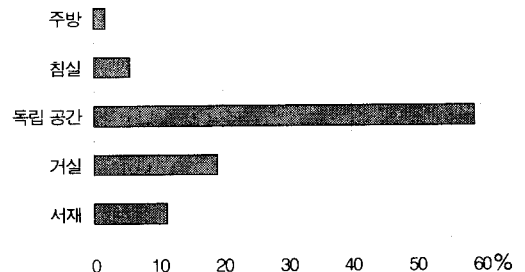


그림 1. 선호하는 재택근무 공간

선호하는 재택근무 공간이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수입, 주택유형, 주택규모, 업무유형, 희망 재택근무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test를 한 결과, 성별, 학력, 주택유형, 주택규모, 희망 재택근무시간에 따라서는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월평균 수입과 업무유형에 따라서는 유의수

준 .01수준에서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에 따라서는 20대에서는 독립 공간을, 30대는 거실을, 40대 이상에서는 서재를 재택근무공간으로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는 100~150만원 미만의 집단은 서재를, 150~200만원 미만의 집단은 거실과 서재를, 200만원이상 집단은 서재와 독립 공간을 재택근무 공간으로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무 유형에 따라서는 사무직인 경우는 독립 공간을, 관리직은 서재와 거실을, 영업/서비스직과 연구/개발/디자인직은 독립 공간을 재택근무 공간으로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배경변인에 따른 선호하는 재택근무공간

내용	공간		서재		거실		독립공간		침실/주방		계	
	f	%	f	%	f	%	f	%	f	%	f	%
연령	20대	17	10.1	26	15.4	108	63.9	18	10.7	169	100.0	
	30대	5	6.8	22	30.1	39	53.4	7	9.6	73	100.0	
	40대	7	46.7	1	6.7	5	33.3	2	13.3	15	100.0	
	계	29	11.3	49	19.1	152	59.1	27	10.1	257	100.0	
$\chi^2 = 45.984***$												
월평균 수입	100만원미만		9	0.0		81.8		9.1		4	100.	
	100~150만원	1	9		22.6		54.0		13.7	12	100.	
	150~200만원		14		30.6		46.8		6.0	6	100.	
	200만원이상		14		7.4		74.1		3.7	2	100.	
계		2	11.		19.1	1	59.1		10.1	25	100.	
$\chi^2 = 36.578**$												
업무 유형	사무직		1.1	8	8.6	60	64.5		1	15.0	93	100.
	관리직		23.7	14	36.8	11	28.9		10.5	38	100.	
	영업/서비스직		11.4	13	18.6	46	65.7		4.3	70	100.	
	연구/개발/디자인		1.8	9	16.1	35	62.5		10.7	56	100.	
	계		2	11.3	49	19.1	152	59.1	2	10.1	257	100.
$\chi^2 = 50.114***$												

\*\*p<.01, \*\*\*p<.001

선호하는 재택근무 공간과 현관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재택근무 공간과 현관의 위치와는 상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0.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안의 중간 정도'가 33.5%, '현관에서 아주 멀리'가 21.8%, '현관 옆'이 3.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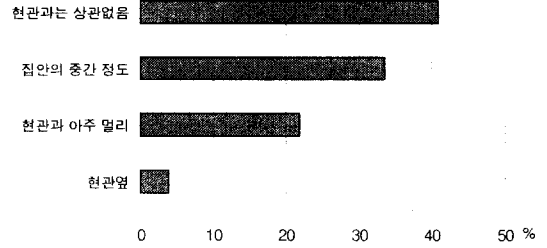


그림 2. 선호하는 재택근무 공간과 현관과의 관계

선호하는 재택근무 공간의 배치(현관에서부터의 거리)가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수입, 주택유형, 주택규모, 업무유형, 희망 재택근무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test를 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하는 재택근무 공간과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재택근무 공간 규모에 대한 선호

재택근무 공간을 위한 규모로는 3평과, 4평이 각각 33.5%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규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평 이상을 24.5%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선호하는 규모가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수입, 주택유형, 주택규모, 업무유형, 희망 재택근무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test 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05에서, 주택규모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01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배경 변인에 따라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2평 이하를, 남성이 3평과 4평을 재택근무 공간규모로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증가할수록 재택근무 공간의 규모가 큰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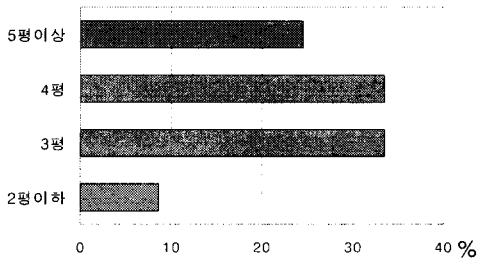


그림 3. 선호하는 재택근무 공간의 규모

표 2. 배경변인에 따른 선호하는 재택근무 공간의 규모

성별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계	
		f	%	f	%	f	%	f	%	f	%
남	남	2	2.2	33	35.5	36	38.7	22	23.7	93	100.0
	여	20	12.2	53	32.3	50	30.5	41	25.0	164	100.0
계		22	8.6	86	33.6	86	33.5	63	24.5	257	100.0
$\chi^2 = 8.415^*$											
주택 규모	20평 미만	8	17.0	11	23.4	16	34.0	12	25.5	47	100.0
	20~30평	6	5.0	52	43.0	36	29.8	27	22.3	121	100.0
	30~40평	6	9.0	20	29.9	23	34.3	18	26.9	67	100.0
	40평이상	2	8.3	3	12.5	11	45.8	6	25.0	24	100.0
	계	22	8.6	86	33.5	86	33.5	63	24.5	257	100.0
$\chi^2 = 26.734^{**}$											

\*p<.05, \*\*p<.01

### 5. 재택근무 공간 형태에 대한 선호

재택근무 공간 형태로 재택근무공간의 개방 정도를 조사한 결과 완전독립형을 42.4%로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부분개방형을 42.0%, 완전 개방형을 15.6%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하미경 외, 1998)와 유사한 것으로 주거 내에서 다른 주거기능공간과 업무기능과의 분리로 업무공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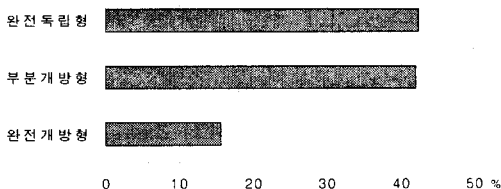


그림 4. 선호하는 재택근무 공간의 형태

선호하는 재택근무 공간 중 독립 공간이외의 공간별 재택근무공간의 형태를 보면 서재인 경우, 완전 독립형을 48.3%로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부분개방형을 37.9%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실의 경우에는 부분 개방형을 61.2%, 다음으로 완전개방형을 32.7%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실의 경우, 부분 개방형을 63.6%, 완전개방형을 31.8%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의 경우, 완전개방형을 60.0%, 부분개방형을 40.0%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재택근무 공간의 위치에 따른 재택근무공간의 형태

	완전개방형		부분개방형		완전독립형		계	
	f	%	f	%	f	%	f	%
서재	4	13.8	11	37.9	14	48.3	29	100.0
거실	16	32.7	30	61.2	3	6.1	49	100.0
침실	8	36.4	14	63.6	0	0.0	22	100.0
주방	3	60.0	2	40.0	0	0.0	5	100.0

재택근무공간이 현관 옆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그 형태로는 완전독립형을 70.0%, 부분개방형을 30.0%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관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는 재택근무공간의 형태로 완전독립형을 57.1%, 부분개방형을 26.8%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중앙에 있기를 선호하는 경우는, 부분개방형을 52.3%, 완전독립형을 36.0% 선호하였다. 현관과는 상관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부분개방형을 42.9%, 완전독립형을 37.1%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현관과의 위치에 따른 재택근무공간의 형태

	완전개방형		부분개방형		완전독립형		계	
	f	%	f	%	f	%	f	%
현관 옆	0	0.0	3	30.0	7	70.0	10	100.0
현관과 아주 멀리	9	16.1	15	26.8	32	57.1	56	100.0
집안의 중간정도	10	11.6	45	52.3	31	36.0	86	100.0
현관과는 상관없음	21	20.0	45	42.9	39	37.1	105	100.0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성별, 연령, 학력, 월 평균 수입, 주택유형, 주택규모, 업무유형, 희망

재택근무 시간)에 따라 선호하는 재택근무 공간 형태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test를 한 결과, 성별, 학력,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05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배경변인에 따라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은 완전 개방형을 남성은 완전 독립형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이하의 학력집단은 완전개방형과 부분 개방형을, 대학교 이상의 학력집단에서는 완전독립형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APT나 단독주택 거주 집단은 완전 독립형을, 연립주택과 빌라 거주 집단은 완전 개방형과 부분 개방형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선호하는 재택근무 공간의 형태

		완전개방형		부분개방형		완전독립형		계	
		f	%	f	%	f	%	f	%
성별	남	8	8.6	39	41.9	46	49.5	93	100.0
	여	32	19.5	69	42.1	63	38.4	164	100.0
	계	40	15.6	108	42.0	109	42.4	257	100.0
$\chi^2 = 6.247^*$									
학력	고등학교	16	21.9	33	45.2	24	32.9	73	100.0
	전문대	11	18.0	23	37.7	27	44.3	61	100.0
	대학교이상	13	10.6	52	42.3	58	47.2	123	100.0
	계	40	15.6	108	42.0	109	42.4	257	100.0
$\chi^2 = 18.364^*$									
주택유형	APT	16	14.3	42	37.5	54	48.2	112	100.0
	단독주택	7	11.3	20	32.3	35	56.5	62	100.0
	연립주택	9	22.5	20	50.0	11	27.5	40	100.0
	빌라/기타	8	18.6	26	60.5	9	20.9	43	100.0
	계	40	15.6	108	42.0	109	42.4	257	100.0
$\chi^2 = 19.521^*$									

\*p<.05

## 6. 재택근무 공간 내 가구 배치형태에 대한 선호

재택근무공간 내 가구 배치형태는 U자형이 33.5%로 가장 많이 선호되었으며, 다음으로 코너형이 29.6%, 알코브형이 14.4%, 수납장형이 9.7%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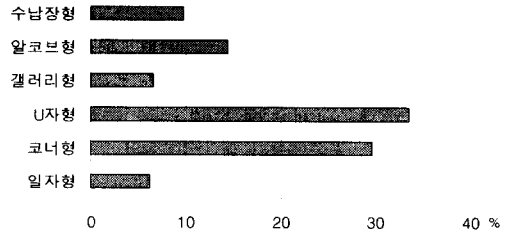


그림 4. 재택근무 공간 내 가구 배치형태

재택근무공간의 규모가 2평 이하일 경우에는 코너형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다음으로 수납장형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평인 경우, 코너형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다음으로 U자형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평인 경우, U자형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다음으로 코너형과 알코브형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평 이상인 경우, U자형을 39.7%로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코너형을 20.6%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재택근무 공간의 규모에 따른 가구 배치 형태

가구배치 규모	일자형	코너형	U자형	갤러리형	알코브형	수납장형	계	
	f %	f %	f %	f %	f %	f %	f %	f %
2평 이하	3 13.6	9 40.9	2 9.1	1 4.5	2 9.1	5 22.7	22	100.0
3평	8 9.3	34 39.5	24 27.9	4 4.7	9 10.5	7 8.1	86	100.0
4평	3 3.5	20 23.3	35 40.7	7 8.1	14 16.3	7 8.1	86	100.0
5평 이상	2 3.2	13 20.6	25 39.7	5 7.9	5 7.9	12 19.0	63	100.0

재택근무 공간형태가 완전개방형에서는 코너형, U자형, 일자형, 수납장형 순으로 선호되었으며, 부분개방형에서는 코너형, U자형, 알코브형과 수납장형 순으로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완전독립형인 경우는 U자형과 코너형, 알코브형 가구배치 순으로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 재택근무 공간 형태에 따른 가구배치 형태

가구배치 규모	일자형	코너형	U자형	갤러리형	알코브형	수납장형	계	
	f %	f %	f %	f %	f %	f %	f %	f %
완전개방형	8 20.0	13 32.5	12 30.0	1 2.5	1 2.5	5 12.5	40	100.0
부분개방형	4 3.7	34 31.5	26 24.1	10 9.3	17 15.7	17 15.7	108	100.0
완전독립형	4 3.7	29 26.6	48 44.0	6 5.5	19 17.4	3 2.8	109	100.0

재택근무 공간으로 서재를 원하는 경우는 U자형의 가구 배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코너형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거실을 재택근무공간으로 원하는 경우는 코너형과 U자형 가구배치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공간으로 독립공간을 원하는 경우는 U자형과 코너형을, 재택근무공간으로 침실을 원하는 경우는 코너형과 수납장형 가구배치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재택근무 공간별 가구 배치형태

가구배치 위치	일자형		코너형		U자형		알코브형		수납장형		계			
	f	%	f	%	f	%	f	%	f	%				
서재	1	3.4	8	27.6	11	37.9	0	0.0	5	17.2	4	13.8	29	100.0
거실	7	14.3	13	26.5	13	26.5	6	12.2	6	12.2	4	8.2	49	100.0
독립공간	4	2.6	44	28.9	58	38.2	10	6.6	26	17.1	10	6.6	152	100.0
침실	3	13.6	10	45.5	3	13.6	1	4.5	0	0.0	5	22.7	22	100.0
주방	1	3.2	1	20.6	1	39.7	0	0.0	0	0.0	2	19.0	5	100.0

#### IV. 결론 및 제언

첫째,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재택근무를 위한 주거계획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기존 주택 내에 재택근무 공간을 만드는 경우 재택근무를 위한 공간으로 독립된 방이나 서재와 같이 주거공간과 물리적인 독립이 가능한 것에 대한 선호가 많았다. 재택근무 공간과 현관과의 관계를 보면 특별히 현관과의 관계에 고려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현관 옆에 있기를 원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이는 출입하는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자 하는 의도를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택근무 공간을 주거 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물리적, 심리·사회적 독립이 가능하여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독립 공간의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20대의 연

령층이 독립공간에 대해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젊은 세대를 위한 재택근무용 주거 계획 시에는 재택근무용 독립공간 계획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셋째, 재택근무 공간의 규모로는 3평~4평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주택규모에 따라 증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재택근무 공간으로 3평~4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주택 규모에 따른 가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재택근무 공간의 형태를 개방정도로 알아본 결과, 완전 독립형에 대한 선호가 가장 많이 나타나 재택근무용 주택 계획시 주거공간과 업무 공간의 분리된 완전 독립형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특히 사람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현관 근처에 배치할 경우 독립성 유지에 각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주택 중앙에 배치하고 거실이나 침실과 공유할 경우에는 부분개방형에 대한 선호가 많았으므로 주거공간과 업무 공간 부분을 분리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구나 파티션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부분 개방형으로 계획하는 경우는 업무공간이 주거공간 내에 노출되는 것이므로 주거공간의 실내디자인 및 가구와 조화될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된다.

다섯째, 재택근무용 가구배치 형태로는 U자형과 코너형에 대한 선호가 많았다.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코너형과 수납장형을, 규모가 커지면 U자형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다. 재택근무 공간 형태별로는 코너형과 U자형이 많이 선호되는 것 이외에 완전 개방형에서는 일자형이, 부분 개방형에서는 알코브형과 수납장형이, 완전 독립형에서는 알코브형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근무 공간의 위치에 따라서는 서재와 독립 공간에서는 U자형, 거실에서는 U자형과 코너형, 침실에서는 코너형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재택근무 공간 형태나 규모에 따라 다양한 배치가 가능한 재택근무용 가구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 주

- 1) 설문도구의 신뢰도는 재검사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15명의 사무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2000년 9월에 2주간의 간격으로 검사와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와 재검사 결과에 대한 상관 계수는 0.832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1. 박영순, 이현정, 안지윤, 류호정(1997), 재택근무를 위한 주거공간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3호, 249-256.
2. 임미숙, 김석경, 권영태, 심방섭(1999). 가사·생활일체 및 재택근무형 주택개발 연구. 대한주택공사.
3. 조성혜(1995).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주거공간속에서의 홈오피스, 가구저널, 1998. 3.
5. 최병두(1995). 재택근무자를 위한 system furniture design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최재필(2000), 재택근무를 위한 주거개념 설정 및 계획·설계 지침 개발, 퍼실리티매니지먼트, 2(1), 5-13.
7. 하미경, 제해성, 구본삼(1998), 사무실 근로자의 홈오피스 디자인 특성에 관한 선호 조사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4호, 55-62.
8. Bredin, A. (1996). The virtual office survival handbook: What telecommuters and entrepreneurs needs to succeed in today's nontraditional workplace. NY: John Wiley.
9. Meade, Jeff(1993). Home sweet office: The ultimate out-of-office experience. Princeton, NJ: Peterson's.
10. Zimmerman, Neal(1996). Home office design. NY: John Wiley & Sons, Inc.
11. 내외경제, 1997.1.27
12. 동아일보, 1999.11.11
13. 중앙일보, 2000.2.18
14. www.hdec.co.kr